

## 8년 만에 주인 찾아온 반려견

잃어버린 반려견이 8년 만에 스스로 주인을 찾아와 주변을 놀라게 했다.

중국 칸칸뉴스는 최근 중국 칭다오에 사는 까오 씨의 잃어버린 강아지가 8년 만에 주인을 찾아온 사연을 소개했다.

8년 전 까오 씨는 반려견 두더우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은 장기간 타지로 일을 떠났고, 딸 역시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느라 집안에는 두더우만이 까오 씨의 곁을 지켰다.

까오 씨는 두더우로 인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8년 전 그녀의 모친이 큰 병을 앓으면서 결국 그녀는 모친을 돌보기 위해 집을 떠났다.

당시 두더우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사례금을 받은 할머니는 “두더우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는 종종 전화로 두더우의 일상을 알려 주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1년 뒤 까오 씨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웃집 할머니와 두



더우의 종적은 어디서고 찾을 수가 없었다. 두더우를 잃은 까오 씨는 오랫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세월은 흘렀고, 까오 씨는 몇 차례 집을 옮겼다. 2년 전에는 두더우가 살던 집에서 6km가량 떨어진 곳에 음식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까오 씨의 음식점 문앞에 두더우가 작은 새끼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나타났다. 8년 만이었다. 두더우를 발견한 까오 씨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두더우는 그녀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안아달라는 듯 몸을 추켜세웠고, 그녀는 두더우를 끌어안은 채 한참 눈물을 흘렸다. 옆에 서 있던 그녀의 딸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영상에 담아 인터넷에 올렸고, 곧 큰 화제가 됐다.

까오 씨는 두더우를 꼭 끌어안은 채 “그래, 그래. 드디어 나를 찾아왔구나. 장하다. 너도 늙고, 나도 늙었네. 우리 함께 늙어가지꾸나. 내가 잘 돌보아 줄게!”라고 말했다.

## 걷는 법 다시 배우는 우주인



미국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 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197일을 보낸 뒤 귀환해 지상 적응 훈련을 하는 모습의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우주비행사인 앤드류 제이 페우스텔(53)은 지난 3월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한 뒤, 197일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다. 페우스텔을 포함한 우주비행사들은 국제우주정거장 내부에서 미중력 또는 무중력 상태로 생활하며,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 후 중력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그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 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와 같은 걸음을 걷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매우 불안해 보이고, 걷는 도중에도 자주 비틀거리거나 정면이 아닌 측면을 향해 걷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페우스텔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은 내용의 24초 분량 영상을 공개한 뒤 “우주에서 6개월 반의 미션을 수행한 뒤 지구로 돌아온 둘째 날, 나는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온 뒤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다.”고 적었다.

한편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 머무는 동안 매일 2시간가량 근육과 뼈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지만, 지구 중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훈련이 필요하다.

또 지구로 귀환한 후에는 인간의 몸이 우주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우주비행사들이 장기간 우주에 머물러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 부부가 된 6살 쌍둥이 남매

6살 된 태국의 쌍둥이 남매가 결혼했다.

지난 25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날 태국 방콕 인근 도시 사뭏쁘라칸에서 6살 쌍둥이 남매의 호화로운 결혼식이 열렸다. 이들 부모는 남매가 전생에 연인이었다고 믿어 이들을 위한 결혼식을 열었다.

쌍둥이의 부모인 아모르산 쏘넨 말리랏(31)과 아내 파차라폰(30)은 모두 불교 신자로 2012년 9월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들을 결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국의 불교신자 가운데는 쌍둥이 남매는 전생에 부부였고 당시 쌓은 업(카르마)을 갚기 위해 함께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결혼식을 치러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이들이 불행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쌍둥이 남매를 위한 전통 혼례식이 치러진 날에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 등 하객 수십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랑이 된 소년은 거리 행진과 함께 9개의 문을 통과하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소년은 소녀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현찰과 금으로 20만 바트(약 6,500달러)



리에 달하는 지참금을 내야 했다. 이후 두 아이는 팔짱을 끼고 포즈를 잡으며 결혼식 사진을 찍었다.

이 결혼식은 관습에 따라 진행되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이들 남매는 성인이 된 후 각각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다.

남매의 어머니 파차라폰은 “결혼식 내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다. 남매는 평생 최고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

www.myevergreenschool.com